

# 국회의원 모두 불출마...싱거워진 민주당 전남지사 공천 경쟁

### 당직 사퇴시한 12일까지 전남 16명 의원 모두 사퇴 안 해 광주시장 후보 경선은 이용섭-강기정 리턴매치 구도 예상

6·1일 지방선거 더블민주당 광주시장, 전남지사 후보 경선은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구도로 확정됐다. 당헌·당규에서 정한 당직 사퇴 시한까지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16명 모두 당직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에선 민주당 공천장이 곧 선거 승리로 여겨지는 탓에 전남지사 선거의 경우 다소 싱거운 선거가, 광주시장의 경우 이용섭 시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간 양강 리턴매치 구도로 판이 굳어지는 모습이다.

15일 민주당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은 당헌·당규에 따라 지난 12일까지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은 광주 6명, 전남 10명 등 16명으로 이들은 모두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이날 현재까지 당직을 유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전까지만 해도 지역 국회의원 상당수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지사 공천 경쟁에 뛰어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대선 뒤 루경을 열어보니 현역 의원은 모두 불출마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은 재선을 준비하는 이용섭 시장과 지난 선거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간 양강 리턴매치 구도가 예상된다.

이 시장은 현역 프리미엄을 무기 삼아 수성에 나서고, 4년 전 선거에서 3선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타이틀로 경선에 나섰던 강 전 수석은 그사이 문제인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고 몸집을 키워 도전을 내밀면서 물리칠 수 없는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전남지사 선거의 경우 현역이 모두 불출마로 가닥을 잡으면서 김영록 전남지사의 재선 가도에 파란불이 켜졌다.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주철현 의원(여수갑) 등 한때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이들이 모두 출마하지 않기로 정리되면서, 이미 출마를 선

연한 민정기 진보당 전남지사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권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야권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높게 보는 이들은 많지 않다.

지역 현 국회의원은 "광주·전남 국회의원 모두가 당직 사퇴 시한까지 당직을 내려놓지 않았다. 대선 전까지만 해도 일부 의원이 자진타진 시장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됐지만, 모두가 이번 선거엔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는 의미"라며 "다만 광주시장 선거의 경우 양강 후보 간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상된다"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민주 비대위, 산불피해 주민 위로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비대위원들이 15일 강원 강릉시 옥계면의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대장동 특검 해야”

### 민주 초선모임 ‘더민초’ 주장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15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과 대장동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더민초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초의원을 최소 3인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선 과정에서 나온 대장동 특검의 조속한 실시도 촉구한다”며 “민주당이 과거 약속했던 소상공인 50조원 지원 등의 내용을 이행할 것도 요구한

다”고 덧붙였다.

더민초는 윤호중 전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 비대위 체제를 두고는 “초선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서도 “현재는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해 직접 퇴진을 요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17일 비대위원장과 더민초가 논의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요구할 것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에 대한 반발이 있느냐 물음에 “문제의식은 있는데 (그렇다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재명 비대위원장 체제 (로 가는 것)는 무리라는 생각이 있어 이야기들이 약간 다운된 (줄어든) 부분’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민주, 6월 법사위원장 국힘에 넘길까...대장동 특검에 속내 복잡

대선 이후 대장동 특검이 다시 정치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의 이관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속내 복잡해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 결정 이후에도 대장동 특검 여부 및 방식을 둘러싼 민주당과 국민의힘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입법 수문장’으로 불리는 법사위원장직 유지 여부가 대장동 특검 처리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23일 상임위원회 재배분에 합의하면서 법사위원장의 경우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계속 맡되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대장동 특검이 대선 이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상설특검법을 활용한 특검 요구안을 고수하는 민주당과 이를 반대하며 별도 특검 임명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간 견해차가 크다.

이 때문에 3월 임시국회에서부터 상설특검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특검과 관련, “3월 임시국회 처리에 아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저희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법사위에서 좀 더 세심히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직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 MB 사면·코로나 추경·北 동향 주요 의제 될 듯

### 오늘 문대통령-윤 당선자 오찬 ‘적폐수사’ 등 이슈 대화 주목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6일 청와대 오찬 회동을 앞두고 신·구 행정부의 수반이 어떤 의제로 대화를 나눌지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 모두 ‘허심탄회한 대화’, ‘격의 없는 대화’를 공언한 가운데 국정현안 전반에 걸쳐 폭넓은 얘기가 오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의 이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이 문제가 신·구 정부의 정권이 양 흐름을 좌우하는 키포인트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견지해왔다”며 윤 당선인의 의중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긍정적

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양 진영의 극단적인 대립을 확인한 만큼 국민통합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청와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아직 내부에서 논의된 바도 없을 뿐더러 문 대통령 역시 참모들에게 이와 관련한 의견을 비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당선인이 건의를 듣고 문 대통령이 고심 끝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확산 속에 코로나19 피해보상 문제도 회동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과 방역 대책 변화 등을 공언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 임기 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이끄는 인수위 내 코로나비상대응특위에서 피해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추경 규모를 짜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경안을 편성

해 세 정부 출범 전에 국회 통과시킨다는 그림이다. 여야가 피해 보상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밖에도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 대북문제, 국제 정세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외교·안보 현안도 주된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 북한의 도발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는 가운데 안보 현안에 있어서 만큼은 진영을 떠나 협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대선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12일 윤 당선인에게 외교·안보 사안을 브리핑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의 이른바 ‘적폐수사’ 발언 등 양측이 대립각을 세웠던 이슈에 대해서도 대화 이뤄질지 주목된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에 대한 언급도 나올 수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전남도의회 16~24일 임시회...민생 조례안 등 처리

전남도의회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60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청과 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위한 감사위원 선임과 건의안, 조례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16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종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

분 처리 비용 정부지원 촉구 건의안’과 최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의 소득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김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 등 총 21여 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꼭! 받아야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암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